

경전 독송(讀誦) 수행의 교학적 함의에 관한 일고

안유숙*

1. 들어가는 말
2. 독송(讀誦)의 정의와 어원
3. 경전 독송의 교학적 전거
4. 경전 독송의 목적과 현대적 의의
5. 맺는 말

■ 한글요약

이 글은 경전 독송(讀誦) 수행의 교학적 함의에 관한 고찰이다.

수행의 관점에서 붓다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기 위해 행하는 경전 독송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저 불보살님의 위신력에 의지하고 가피를 얻기 위해 독송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한 연유 때문인지 선행연구물은 독송의 영험담을 중심으로 한 연구물들이 다수이다. 본 연구는 경전 독송 수행의 본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불교에서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경전 독송에 대한 교학적 전거를 찾고, 독송 수행의 목적과 현대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야합과 니까야를 비교·대조하여, ‘독송하다’는 산스크리트어 ✓

*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철학박사

dhṛ에서 파생된 동사 ‘dhārehi’에서 비롯된 용어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단어는 ‘~들고 지니다, ~를 간직하다, ~의미를 명심하다, ~을 호시하다’의 명령형으로 해석되며, ‘受持·諷·誦·讀·誦’으로 한역되기도 한다.

교학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아비달마에서는 십이부경을 수지·독송하고 사유·관찰하며, 청문한 교법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혜(聞慧)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대승 경전에서 사경(寫經)과 경(經)에 대한 공양을 추가하며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늘날 관음신앙의 근거가 된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 『천수경』, 혹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수지 독송할 때에도 경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며 독송 수행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수행, 수지(受持), 독송(讀誦), 해탈, 대승.

1. 들어가는 말

불교수행(修行)¹⁾의 핵심은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출리(出離)토록 한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자리(自利)와 이타(利他)적 관점에서 괴로움의 소멸, 지혜와 자비심의 계발을 중시하는 불교수행은 절, 염불, 주력, 독경, 간경, 사경, 좌선, 삼매, 사마타(止)·위빠사나(觀) 등이 있다.²⁾ 이 가운데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경의 의미를 받아 지니는 경전

1) 수행(修行)은 산스크리트어와 팔리어 bhāvanā의 번역어이며, 교법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도록 닦아 익힌다는 의미에서 수습(修習)이라 한역되기도 한다. 이 단어는 ‘[마음, 자비심 등을] 계발하다. 생산하다. 정신을 수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독송은 예비적 단계의 수행으로서 해탈의 길로 나아감에 매우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수행은 교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 예를 들어 『아함경』에서 붓다는 감각적인 욕망을 다루는 방법, 오염된 마음을 다루는 방법, 지혜를 일으키는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며 ‘~한 경을 받아서 잘 외우고 지녀야 한다’³⁾라고 권고하기도 한다. 아비달마에 이르러서도 ‘12부경을 수지·풍송, 사유·관찰하라’⁴⁾고 강조한다.

그런데 오늘날의 경전 독송은 수행의 목적이라기 보다 추선공양(追善供養)을 올리거나 멸재초복(滅災招福)의 구복을 위한 의식행위로 받아들여져, 지나치게 경전과 불보살님의 위신력에만 의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래 경전 독송은 붓다의 가르침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현 시대에도 본래 취지에 맞게 경전 독송 수행에 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우리가 자신의 몸, 마음, 신념, 역할, 삶의 상황을 나와 동일시할 때마다 우리는 자아라는 감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러한 동일시는 자신의 느낌, 생각, 지각을 ‘나’, ‘나의 것’으로 간주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⁵⁾ 이러한 마음의 오염된 경향성은 일체의 괴로움을 일으킨다. 범부는 일체제법이 영상과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허공의 꽃과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법계를 직접지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음의 청정한 성품을 일으키기 위해서 경전 독송수행은 꼭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경전 독송수행을 고찰함에 있어서 독송의 영험담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마음을 다루는 방법으로서의 독송 수행을 권고하고 있는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

2) 조기룡(2018), 305.

3) 『중아함경』(T1, 575a). “善諷誦持”; 『중아함경』(T1, 605a), “當諷誦讀”.

4) 『아비담비바사론』(T28, 168a), “受持讀誦·思惟觀察十二部經”.

5) 잭 콘필드(2020), 100.

자 한다.

독송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관음신앙의 관점⁶⁾에서 다루거나 『법화경』 관련 연구⁷⁾, 『능엄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초기에서 대승에 이르기까지 경전 독송에 대한 교학적 전거를 찾고, 독송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아함경』과 니까야에서 수지(受持), 독송(讀誦)에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 비교하고,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脩大藏經)』을 검토하며 초기불교와 부파불교, 대승불교의 문헌에 나타나는 독송수행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독송 수행의 목적과 현대적 의의를 확인할 것이다.

2. 독송(讀誦)의 정의와 어원

불교에서 ‘경(經)을 읽는다, 암송한다’라는 말은 붓다의 가르침이 담긴 경을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대중들과 함께 소리 내어 읽고 외우는 것을 의미한다. 붓다 재세 시, 암송은 경에 담긴 의미와 지혜를 익히고 전달하는 주된 학습방법이었다. 따라서 독송(讀誦)은 붓다의 가르침이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는 경을 받아 간직하고 익히기 위하여 암송하는 풍송(諷誦)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붓다의 교설은 문자로 기록되기 전까지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었다.

불멸 후, 무질서가 승단에 밀려들어 올 것을 피하기 위해 까샤빠는 비구들에게 법(法, dharma)과 율(律, vinaya)을 결집할 것을 제의했다. 그는

6) 김동림(2019) ; 김수아(2016) ; 이기운(2011) ; 이유진(2019) ; 박은경(2020).

7) 이기운(2011) ; 차차석(2008) ; 최은영(2013).

499명의 아라한들을 선발했다. 그러나 이 아라한들의 요청에 따라, 아라한은 아니었으나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아난다 역시 소집되었다. 합동 토의를 거친 뒤 500비구들은 우기(雨期) 동안 라자그리하에서 법과 율을 공동으로 합송[合誦·結集]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대중들은 마가다의 수도 라자그리하에 가서 결집 장소를 정비하는 데 우기(雨期)의 첫 달을 보냈다.

아난다는 결집 모임 바로 그날 아침, 돌연히 깨달음을 얻어 아라한이 되었다. 개회가 되었다.⁸⁾

비록 해탈을 위해서 경의 의미를 받아 지니는 수행과 붓다의 가르침을 전승하기 위한 결집의 의미가 서로 온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붓다가 말한 모든 것은 청법자(聽法者)들을 해탈로 인도한다는 목표와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⁹⁾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¹⁰⁾’는 붓다의 가르침과도 상응한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 그러하니 붓다의 제자들과 후대의 논사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전승된 붓다의 말씀은 “마치 큰 바다는 하나의 맛인 짠맛이 있듯이 이 법과 율도 단지 하나의 맛인 해탈의 맛이 있다”¹¹⁾고 기록된다.

이제 해탈의 맛을 가진 법과 율을 수지 독송한다는 것은 불제자의 본분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렇듯 경을 암송하며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수행자의 삶의 방식은 붓다의 교설이 문자화된 이후에 경권(經卷)을 손에 들고 읽어 내려가는 독경(讀經), 독송(讀誦), 간경(看經), 풍경(諷經), 송경(誦經)으로 혼용되어 사용된 경향을 보인다.

8) 에띠엔라모뜨 지음·호진 역(2006), 250.

9) 에띠엔라모뜨 지음·호진 역(2006), 280.

10) 『잡아함경』(T2, 177a), “阿難，是名自洲以自依，法洲以法依不異洲不異洲依。”

11) AN.IV, 203, “seyyathāpi mahāsamuddo ekaraso lonaraso evam eva kho ayam dhammavinayo ekaraso vimuttirasō.”; 『중아함경』(T1, 476c), “復次婆羅邏，如大海水鹹皆同一味。婆羅邏，我正法律亦復如是，無欲爲味覺味息味及道味。”

먼저 한역 『아함경』에서 풍독(諷讀)·풍송(諷誦)이라는 용어는 니까야에서 √dhṛ에서 파생된 동사 ‘dhārehi’로 확인된다. 이 동사는 ‘受持諷誦’, ‘諷誦受持’, ‘當諷誦讀’, ‘受持讀誦’ 등의 형태로 한역된다. 2인칭 단수형태의 명령형 동사 ‘dhārehi’는 ‘~들고 지녀라, ~를 간직하라, ~의미를 명심하라, ~을 호지하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dhṛ는 ‘受持, 受, 持, 憶持, 奉持, 執; 能任持, 守護; 能持不忘, 憶持不忘, 受持無有妄失’로 한역되며, 파생어로 ‘다라니’가 있기 때문에 경전 독송과 주력의 연관성도 배재할 수 없다.

또한 독송(讀誦)·풍송(諷誦)은 ‘Svādhyāyana’에 해당하고, 十法行의 하나로 분류한다.¹²⁾ ‘Svādhyāya’는 ‘베다, 혹은 다른 성서의 암송’을 의미하며,¹³⁾ Sva+adhyāya로 구성된 산스크리트 복합어다. Sva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고, Adhyāya는 ‘수업, 강의, 독서’를 뜻한다. 그러므로 Svādhyāya는 ‘자기 자신의 학습, 독서’라고 직역할 수 있다. 불교 전승에서 이 단어는 주로 대승경전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경을 수지 독송함은 붓다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경을 되풀이하여 읽거나 공경함으로써 교법의 의미가 이해된다고 하여 강조된 것으로 간주된다. 간경자혜안통투(看經者慧眼通透)라는 발원이 있듯이 수행의 궁극은 밝은 지혜의 눈으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고 여래지(如來地)에 직입(直入)하는 것이므로 독송 수행의 본래의 취지도 그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12) Mahāvīyutpatti(『翻譯名義大集』) 910에 해당한다. 十法行은 書寫(lekhanā), 供養(pūjanā), 布施(dānam), 聽聞(śravaṇam), 誦念(vācanam), 執持(udgrahaṇam), 開示(prakāśanā), 讀誦諷誦(svādhyāyanam), 思惟(cintanā), 觀想·修習(bhāvanā)이다.

13) Apte(1965), 1016.

3. 경전 독송의 교학적 전거

1) 『아함경』에서의 풍송(諷誦)

붓다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사변적이지 않고, 경험적이었다. 붓다의 제자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따라 고요한 곳에서 집중하면서 체득한 미묘한 내적인 느낌을 탐구하는 것만으로도 유용하고 진실한 지혜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불교의 수행은 교법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므로 붓다는 제자들에게 교설 안에서 듣게 된 경을 잘 외우고 지닐 것을 당부한다.

그 때 세존께서는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마땅히 함께 이 청백연화유경을 받아서 외우고 익히고 지켜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청백연화유경은 범다운 뜻이 있으며, 이것은 범행의 근본으로써 신통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며, 또한 열반을 이루기 때문이다. 만일 족성자로서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지극한 믿음으로 집을 버리고 집 없이 도[해탈]를 배우는 자라면 마땅히 이 청백연화유경(靑白蓮華喻經)을 받아서 잘 외우고 지녀야 한다.

붓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존자 아난과 모든 비구들은 붓다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¹⁴⁾

인용문에서 보이는 ‘청백연화유경’은 푸르고, 붉고, 빨갛고, 하얀 연꽃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경으로 한역 『중아함경(中阿含經)』의 「예품(穢品)」-오염된 마음을 다룬 경들을 모아둔 품-에 속한다. 이 경에

14) 『중아함경』(T1, 575a), “爾時世尊告諸比丘。汝等當共受此靑白蓮花喻經誦習守持，所以者何，此靑白蓮華喻經如法有義是梵行本，致通致覺亦致涅槃，若族姓子，剃除鬚髮著袈裟衣，至信捨家無家學道者，應當受此靑白蓮華喻經善諷誦持。佛說如是，尊者阿難及諸比丘聞佛所說，歡喜奉行。”

서는 연꽃은 물에서 태어나서 물에서 자랐지만 물 위에서 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악욕(惡欲)과 악견(惡見)이 소멸한 여래는 세간에서 태어나서 세간에서 자랐지만 세간을 초월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이 등정각(等正覺)을 이루고 모든 세간을 초월한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특히 탐욕을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은 몸과 입을 따라서 멸하지 않으며, 다툼·성냄·원한·아침·부끄러워하지 않는 부정적인 마음의 작용도 지혜로운 견해를 따라 멸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¹⁵⁾. 또한 부정적인 마음의 작용은 몸을 닦고, 계를 닦으며, 마음을 닦고, 지혜를 닦아야 멸한다¹⁶⁾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염된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수행의 관점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잡아함경』에서 붓다는 번뇌와 번뇌 없는 법을 설한 ‘누법경’을 수지독송(受持讀誦)¹⁷⁾하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를 당부한다. 한역 아함경에 비하여 니까야는 수행자가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익혔던 가르침을 중심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승 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경의 내용 또한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교설을 기억하거나 고요한 곳에 머물러 내관(內觀)을 닦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간단하고 외우기 쉽게 진리의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 암송하고 다니면서 수행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¹⁸⁾.

붓다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교법에 담긴 의미를 탐구하고, 체득하기에 적절한 공간으로 숲에서의 수행을 종종 권고하였다고

15) 『중아함경』(T1, 574c), “云何法不從身口滅, 但以慧見滅. 增伺不從身口滅, 但以慧見滅. 如是諍訟. 恚恨. 瞋纏. 不語結. 慳. 嫉. 欺誑. 諛諂. 無慚. 無愧. 惡欲. 惡見, 不從身口滅, 但以慧見滅. 是謂法不從身口滅, 但以慧見滅.

16) 『중아함경』(T1, 574c-575a), “知此人如是修身修戒修心修慧. 如修身修戒修心修慧, 得滅增伺. 所以者何. 以此人心不生惡 * 增伺而住. 如是諍訟恚恨瞋纏不語結慳嫉欺誑諛諂無慚無愧, 得滅惡欲惡見.

17) 『잡아함경』(T2, 316c), “乃至信心善男子, 在家出家, 當受持讀誦廣為人說.

1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12), 36.

한다. 숲속에서의 생활을 다룬 경들을 분류한 『중아함경』 「임품(林品)」¹⁹⁾에서 붓다는 ‘밀환유경(蜜丸喻經)’을 마땅히 잘 받아 지녀야 한다²⁰⁾고 설한다. 이 경에는 번뇌 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괴로움을 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문장은 6차례 반복된다.

비구여, 어떤 것을 원인으로 사람에게 사랑분별(papañca)의 경향성의 무더기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 즐거움과 환영과 집착이 없으면 그것이 바로 탐욕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적의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견해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의심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교만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존재[有]의 탐욕에 대한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무명의 잠재성향들의 끝이요, 그것은 몽둥이를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상호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는 것의 끝이니 여기서 이런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남김없이 소멸한다.²¹⁾

본래 의식의 본성은 밝게 빛나는 것이지만 자아의식에서 찾아오는 집착으로 인하여 오히려 탐욕의 잠재성향과 같은 여러 번뇌들이 수반된다. ‘밀환유경’에서 의식 내부에서 인상적인 지각을 확산하는 사랑

19) 붓다는 올바른 주의 집중, 해탈, 번뇌의 소멸과 열반을 얻도록 숲속에서 머물기를 비구들에게 간곡하게 권한다.

20) 『중아함경』(T1. 604c-605a), “汝等受此蜜丸喻法當諷誦讀.”: MN. I, 114, “Tasmātiha tvam, ānanda, imaṃ dhammapariyāyaṃ madhupiṇḍikapariyāyotveva naṃ dhārehiṭi.”

21) MN. I, 109-110, “Yatonidānaṃ, bhikkhu, purisaṃ papañca-saññā-saṅkhā samudācaranti. Ettha ce natthi abhinanditabbaṃ abhivaditabbaṃ ajjhositabbaṃ. esevanto rāgānusayānaṃ, esevanto paṭighānusayānaṃ, esevanto diṭṭhānusayānaṃ, esevanto vicikicchānusayānaṃ, esevanto mānānusayānaṃ, esevanto bhavarāgānusayānaṃ, esevanto avijjānusayānaṃ, esevanto daṇḍādānasatthādānakalahaviggahavivādatuvamtuvaṃpesuñña musāvādānaṃ. Etthete pāpakā akusalā dhammā aparisesā nirujjhanti”ti.”

분별에 대하여, 근경식(根境識)의 접촉에 의하여 느낌→지각→사유의 순으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²²⁾한다. 붓다는 사랑분별을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그 법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어떤 경우든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인 염(念, sati)이 시작된다고 설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사랑분별을]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그 법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어떤 경우든지 염각지(念覺支, satisambojjhaṅga)가 일어난다. 그때 비구는 염각지를 닦는다. 염각지는 비구에게 닦여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그는 그와 같이 염(sati)하며 머물면서 그 법을 지혜로써 심사(尋伺)하고 철저히 관찰한다.²³⁾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은 여러 갈래로 흩어지려 한다. 수행자에게 경을 암송한다는 것은 수행이 더욱 깊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 또한 수반될 것이다. 위의 경에서처럼 붓다는 제자들에게 법의 기억과 관찰, 사띠의 발생과 더 나아가 마음을 삼매에 들게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서 경을 받아 지니며, 방일하지 않고 수행을 거듭하게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2) 『중아함경』(T1, 604b), “諸賢等，共聽我所說。諸賢，緣眼及色生眼識，三事共會便有更觸。緣更觸便有所覺。若所覺便想，若所想便思，若所思便念，若所念便分別。比丘者因是念，出家學道思想修習。此中過去未來今現在法，不愛不樂不著不住，是說苦邊，欲使·患使·有使·慢使·無明使·見使·疑使，鬪諍·憎嫉·諛諂·欺誑·妄言·兩舌，及無量惡不善之法，是說苦邊。”

23) SN.V, 68-69, “Yasmim samaye, bhikkhave, bhikkhu tathā vūpakaṭṭho viharanto taṃ dhammaṃ anussarati anuvitakketi, sati-sambojjhaṅgo(念覺支) tasmim samaye bhikkhuno āraddho hoti. Sati-sambojjhaṅgaṃ yasmim samaye bhikkhu bhāveti, sati-sambojjhaṅgo tasmim samaye bhikkhuno bhāvanā pāripūriṃ gacchati. So tathā sato viharanto taṃ dhammaṃ paññāya pavicinati(尋) pavicarati(伺) parivīmaṃsamāpajjati.”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머물 때 그는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중하며, 단호하게 수행한다. 마침내 저 세속에 얽힌 재빠르게 일어나는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래서 재가생활에 뿌리를 둔 기억과 의도를 버린다. 그것을 버림으로써, 안으로 마음을 정립하고, 안주하고,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들게 한다.²⁴⁾

비록 『아함경』과 니까야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망상 [희론]의 발생원인과 괴로움의 끝에 대한 교설은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초기불전의 교법은 5온·12처·18계·22근·4성제·12연기의 6가지 주제로 정리되고 수행은 37보리분법의 7가지 주제와 계·정·혜 삼학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형성된 모든 존재가 무상·고·무아임을 통찰함으로써 탐욕을 여의고, 해탈·열반을 실현한다는 내용이 아함경에 담겨 있다. 이러한 의미를 지닌 경에 대하여 붓다는 제자들에게 잘 외우고 지녀야함을 거듭 인식시킴으로써²⁵⁾ 교법에 대한 바른 앎을 증장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간주된다.

밀환유경 말미에 ‘아난다는 세존께 마치 배가 고파 지친 사람이 꿀덩어리를 얻어서 어느 부분이라도 먹으면 달콤하고 황홀한 맛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성품이 현명한 비구가 이 법문의 뜻을 어느 부분이라도 통찰지로 자세히 살펴보면 기쁨을 얻고 청정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이라²⁶⁾’고 말하는 것을 보더라도 수행자에게 경을 암송하는 행

24) MN.Ⅲ, 89, “Tassa evaṃ appamattassa ātāpino pahitattassa viharato ye gehasitā [gehassitā (tīkā)] sarasaṅkappā te pahiyanti. Tesam pahānā ajjhattameva cittaṃ santiṭṭhati(定立) sannisīdati(安住) ekodi hoti samādhīyati.”

25) 『중아함경』(T1, 656a), “欲教弟子諷讀(=誦)經書”

26) MN.Ⅰ, 114, “evaṃ vutte āyasmā ānando bhagavantam etadavoca. seyyathāpi, bhante, puriso jighacchādubbalyapareto madhupiṇḍikaṃ adhigaccheyya, so yato yato sāyeyya, labhetheva sādurasam asecanakaṃ. evameva kho, bhante, cetaso bhikkhu dabbajātiko, yato yato imassa dhammapariyāyassa paññāya attham upaparikkhēyya,

위는 해탈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2) 『대반열반경』에서의 독송(讀誦)

『대반열반경』에서 붓다는 모든 비구들에게 계·정·혜와 해탈의 네 가지 법을 듣고 알지 못하면 오래도록 생사의 바다에 빠져있거나 아 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또한 붓다는 비구들에게 사성제의 교설을 통해서 모든 법에 대하여 번뇌를 끊고 마음이 해탈하는 길에 대하여 말하며, 법을 듣고 잘 받아 지녀야 할 법과 그렇지 않아야 할 법을 분별할 것을 당부한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지 결정설(決定說)이 있으니, 첫째는 만일 어떤 비구가 설법하기를 좋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되, ‘내가 직접 비구·비구스님들에게 이와 같은 법을 듣고, 그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受持讀誦) 모든 것을 통달하여 걸림이 없다[通利]’라고 말하면 그대들은 반드시 그를 청하여 법을 말하게 하고 들은 것에 따라 수다라(修多羅), 비니[律藏], 법상(法相)에 이러한 법이 있는지 잘 생각하여 만일 수다라·비니·법상에 이러한 법이 있다면, 마땅히 받아 지니고(宜應受持)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만일 수다라·비니·법상에 이러한 법이 없으면 마땅히 받아 지니지 말고(不應受持) 또한 칭찬하지도 말아야 하니, 이 법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²⁷⁾

labhetheva attamanatam, labhetheva cetaso pasādam.

27) 『대반열반경』(T1, 195c-196a), “爾時, 世尊告諸比丘: “有四決定說. 一者若有比丘, 樂欲說法, 作如是言: ‘我親從佛聞如是法, 善解其義, 受持讀誦, 極自通利.’ 汝等宜應請之令說, 應隨所聞善自思惟, 爲修多羅, 爲是毘尼, 法相之中, 有此法耶? 若修多羅及以毘尼法相之中, 有此法者, 宜應受持, 稱讚善哉. 若修多羅及以毘尼法相之中, 無此法者, 不應受持, 亦勿稱讚, 當知此法, 非我所說…” 時, 諸比丘而白佛言: “善哉! 世尊! 我等從今當能分別佛說魔說.”

(...중략...) 모든 비구들이 붓다께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지금부터 붓다의 말씀과 마설(魔說)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생사의 강을 건너는데 반드시 필요한 뗏목과 같은 것이다. 붓다의 가르침은 물리적인 몸, 즐거움과 고통의 느낌, 다양한 종류의 지각·기질·활동·의도 등을 인식하며, 알고 있다는 그 사실도 인식하는 수행을 위한 토대가 된다. “어떤 것에 대하여 사유를 거듭해서 일으키고 거듭 하다보면 그대로 마음의 성향이 된다”²⁸⁾라는 붓다의 말씀처럼, 출리²⁹⁾에 대하여 제시되는 변화의 길은 점진적이며, 수행자 각자의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다른 것으로 바꾸는 길이다.³⁰⁾

3) 『아비담비바사론』에서의 독송(讀誦)

아비달마에 이르러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논의는 더욱 체계화된 형식으로 나타난다. 아래의 인용문에서 십이부경을 수지·독송하고 사유·관찰하는 것은 생득혜(生得慧)라고 하며, 이 생득혜(生得慧)는 문혜(聞慧)·사혜(思慧)·수혜(修慧)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 만약 역[億=所智慧相]이 헤라면 혜에는 문혜·사혜·수혜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의 체성은 어떤 것인가?

28) MN.I, 115, “Yaññadeva, bhikkhave, bhikkhu bahulamanuvitakketi anuvicāreti, tathā tathā nati hoti cetaso.”

29) MN.I, 116, “So evaṃ pajānāmi: ‘uppanno kho me ayaṃ nekkhammavitakko. So ca kho nevattabyābādhāya saṃvattati, na parabyābādhāya saṃvattati, na ubhayabyābādhāya saṃvattati, paññāvuddhiko avighātapakkhiko nibbānasamvattaniko”

30) 박재용·강병화 옮김(2018), 52-53.

답) 듣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문혜이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사혜이며, 닦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수혜이다. 어떤 사람은 “가령 십이부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유 관찰하는 것은 문혜이다. 이 문혜를 의지해서 다음으로 사혜가 일어나고, 이 사혜를 의지해서 다음으로 수혜가 일어난다. 마치 금광(金鑛)을 의지해서 금이 생기고 금을 의지해서 금강(金剛)이 생기는 것과 같은데,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고 하였다.

평)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과 같이 “십이부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유 관찰하는 것은 생득혜(生得慧)이다. 이 생득혜를 의지해서 문혜가 일어나고, 문혜를 의지해서 사혜가 일어나고, 사혜를 의지해서 수혜가 일어난다. 마치 종자를 의지해서 싹이 생기고, 싹을 의지해서 수혜가 일어난다. 마치 종자를 의지해서 싹이 생기고, 싹을 의지해서 줄기와 잎 등이 생기는 것과 같은데, 이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라고 말해야 옳다.³¹⁾

위의 인용문에서는 『아함경』에서 “밀환유경”과 같은 특정 경을 권했던 것과는 달리 십이부경³²⁾의 수지·독송, 사유·관찰을 언급한다. 십이부경은 붓다의 가르침을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아비달마에서도 경전을 통해서 교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수행자는 십이부경을 수지·독송하고 사유·관찰하며, 청문한 교법에 대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혜가 발생한

31) 『아비담비바사론』(T28, 168a), “問曰, 憶若是慧者, 慧有三種. 謂聞思修. 此三體性, 是何耶. 答曰, 從聞生者是聞慧, 從思生者是思慧, 從修生者是修慧. 復有說者, 若受持讀誦思惟觀察十二部經, 是聞慧, 依此聞慧次生思慧, 依此思慧, 次生修慧, 如依金鑛生金依金生金剛, 彼亦如是. 評曰, 不應作是說, 如是說者好, 受持讀誦, 思惟觀察十二部經, 是生得慧, 依生得慧生聞慧, 依聞慧生思慧, 依思慧生修慧, 如依種生牙依 * 牙生莖葉等, 彼亦如是.”

32) 12부경은 수다라(修多羅, sūtra), 기야(祇夜, geya), 가타(伽陀, gāthā), 이타나(尼陀那, nidāna), 이제목다가(伊帝目多伽, itivṛttaka), 사다가(闍多伽, jātika), 아부타달마(阿浮陀達磨, adbhuta-dharma), 아파타나(阿波陀那, avadāna), 우파제사(優婆提舍, upadeśa), 우타나(優陀那, udāna), 비불략(毘佛略, vaipulya), 화가라(和伽羅, vyākaraṇa)이다.

다 할 수 있다. 사해는 명칭을 의지해서 의미를 이해하는 것과 명칭에 의지하지 않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수해는 어느 때이든 명칭을 의지하지 않고 명칭을 이해하는 것³³⁾을 가리킨다.

4) 대승 경전에서의 독송(讀誦)과 그 공덕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집대성한 『대반야바라밀다경』은 성문·독각·보살 삼승이 배워야 할 온갖 법을 모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지, 독각지, 보살지, 여래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다를 부지런히 듣고[勤聽], 익히고[習], 독송(讀誦)하며 수지(受持)해야 한다고 설명한다.³⁴⁾ 보살마하살이 보시(布施)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려 하면 마땅히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하고 정계(淨戒)·안인(安忍)·정진(精進)·정려(靜慮)·반야(般若)바라밀다를 원만하게 하고자 하여도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하며, 근경식(根境識)의 삼사화합이 조건이 되어 발생한 느낌을 두루 알고자 하여도 반야바라밀다를 배워야 한다³⁵⁾고 거듭 설명한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모든 중생을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제도하리라’³⁶⁾는 보살마하살의 서원에서도 확인되듯이 대승은 실천의 주체를 아라한에서 보살로 옮겨왔다.

대승의 경전에서는 반야바라밀다에 큰 이익이 있다고 하여, 선남자

33) 『아비담비바사론』(T28, 168a-b)

34) 『대반야바라밀다경』(T5, 202c), “善現, 欲學聲聞地者, 當於般若波羅蜜多應勤聽習讀誦受持, 如理思惟, 令其究竟. 欲學獨覺地者, 當於般若波羅蜜多應勤聽習讀誦受持, 如理思惟, 令其究竟. 欲學菩薩地者, 當於般若波羅蜜多應勤聽習讀誦受持, 如理思惟, 令其究竟. 欲學如來地者, 當於般若波羅蜜多應勤聽習讀誦受持, 如理思惟, 令其究竟. 何以故, 如是般若波羅蜜多中廣說開示三乘法故, 若菩薩摩訶薩學般若波羅蜜多, 則爲遍學三乘, 亦於三乘法皆得善巧.”

35) 『대반야바라밀다경』(T5, 119c-200a)

36) 『금강반야바라밀경』(T8, 749a), “我皆令入, 無餘涅槃, 而滅度之.”

· 선여인이 반야바라밀다에 대해서 스스로 찬탄하고 존중하고 공경하며, 온갖 향과 꽃과 등불을 올리고 당번과 보개를 걸고 으뜸가고 미묘한 옷과 같은 것으로 갖가지의 공양을 하기도 한다.³⁷⁾ 뿐만 아니라 불교 초기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경과 경에 대한 공양이 추가된다.

교시가여, 만일 어떤 선남자·선여인이 능히 이 반야바라밀다 법문을 서사(書寫)하고, 공양하며, 받아 지니고, 독송하고, 외워서 기억하고, 사유하며, 설해진 것과 같이 수행한 자는 이러한 인연으로 현세에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된다.³⁸⁾

보살에게 예배(禮拜)·공양(供養)·참회(懺悔)·수희(隨喜)·권청(勸請)·발원(發願)·회향(廻向)은 최상의 공양이며, 발보리심·청정심·자성이 공(空)함을 알고 아견을 끊는 것은 세 가지 근본이 된다.³⁹⁾ 대승의 불교도는 정법이 오래 머물도록 반야바라밀을 책으로 만들어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제공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공덕이 된다고 여겼다.

세존께서 말씀한다.

그렇다. 교시가여. 만약 선남자 혹은 선여인이 이 반야바라밀다를 서사하며 책의 형태로 만들어 스스로 공양하여도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다를 서사하며 책의 형태로 만들어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그것을 공양

37)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T8, 603b8), “是善男子善女人, 於此般若波羅蜜多, 自所稱讚尊重恭敬, 又復以諸香華燈, 塗幢幡寶蓋上妙衣服, 作如是等種種供養.”

38)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T8, 598c), “次憍尸迦, 若有善男子善女人, 能於此般若波羅蜜多法門, 書寫·供養·受持·讀誦·記念·思惟, 如說修行者, 是人以是緣故, 於現世中得大利益.”

39) 『불설법집명수경』(T764, 660b), “云何七種最上供養, 所謂禮拜供養懺悔隨喜勸請發願迴向. 云何三根本. 所謂發菩提心清淨心自性空斷我見.”

하게 한다면 그 선남자·선여인이 이 인연으로 얻게 되는 복덕은 매우 클 것이다.40)

보살의 계본(戒本)에는 이타심이 유일한 행위의 규범이었으며 대승불교도들의 신앙심은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처럼 보리심을 일으킨 나무개는 한량없는 중생들은 어머니로, 아버지, 자매로, 형제로, 아들로, 딸로, 그리고 가까운 친척으로 삼는다. 이렇게 한 뒤, 나는 모든 능력과 힘과 지혜로 그들에게 선근을 심을 것이다. 장차 내가 할 보시, 지킬 계, 유지할 인욕, 발휘할 정진, 닦을 선정, 개발할 지혜, 구사할 방편, 이 모든 것이 중생들의 이익과 선과 행복을 위한 것이 될 것이다.41)

대승불교의 몇 부파들이 진정한 불교의 신애(信愛, bhakti)신앙을 발전시킨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극락장엄경』이나 『법화경』과 같은 고도의 신비주의적인 경전들에서 가장 적합한 표현방식을 발견하게 된다.42)

약왕이여, 반드시 알라. 여래가 열반하신 뒤에 능히 쓰고, 가지고, 읽고, 외우고, 공양하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자는 여래가 곧 옷으로 덮어 주실 것이다. 또 타방과 현재의 여러 부처님을 호념하는 것으로 하여 금 이 사람은 큰 신력(信力)과 지원력(志願力)과 여러 가지 선근력(善根力)이 있으니,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여래와 더불어 머물며, 여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진다.43)

40)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T8, 603b), “佛言. 如是如是, 橋尸迦. 若善男子善女人, 以此般若波羅蜜多書寫經卷自所供養, 不如有人以此般若波羅蜜多書寫經卷, 轉授他人令其供養, 此善男子善女人, 以是因緣得福甚多.”

41) N. Dutt(1931), 275.

42) 에띠엔라모뜨 지음·호진 역(2006), 841-842.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암송하며, 풀어서 설명하고, 서사하는 자를 오종법사(五種法師)라 한다.⁴⁴⁾ 법사라는 명칭은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⁴⁵⁾ 불멸 후 기나긴 세월동안 붓다의 교설은 다양한 공간에서 토착화를 거치며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대승의 경전이 붓다의 교설을 원음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4. 경전 독송의 목적과 현대적 의의

오늘날 『법화경』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은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었으며 「관음경」으로 편찬되고, 『천수경』과 더불어 현재까지 많은 불자들에게 독송되고 있다. 『천수경』은 대승불교의 참회사상을 바탕으로 밀교의 대다라니 독송[진언]과 결합되어 독특한 형식으로 발전한 것이다⁴⁶⁾. 천수다라니는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응축해 놓은 진언이지만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저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에 의지해 그 가피를 얻기 위해 독송한다. 가범달마 역본 『천수경』에서 천수다라니에 대하여 ‘관세음보살은 대자비심이야말로 이 다라니의 표현 [相貌]이 되니 이는 평등심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무위심이며. 무염

43) 『묘법연화경』(T9, 31b), “藥王當知。如來滅後。其能書持讀誦供養爲他人說者。如來則爲以衣覆之。又爲他方現在諸佛之所護念。是人有大信力及志願力諸善根力。當知是人與如來共宿。則爲如來手摩其頭。”

44) 『묘법연화경문구』(T34, 107c), “此品五種法師。一受持二讀三誦四解說五書寫。”

45) 차차석(2008), 28.

46) 윤종갑(2018), 238.

착심·공관심·공경심, 그리고 비하심(卑下心)·무잡란심·무견취심·무상보리심 등이 그 표현이 되기도 하는 바, 이 9가지 마음에 의지해서 수행토록 하라⁴⁷⁾고 한다. 주력은 소리를 내어 외운다는 점에서 염불이나 간경과 통하며, 관법을 통해 삼매나 지혜를 얻는다는 점에서 참선이나 지관수행과 통하는 바가 있다.⁴⁸⁾ 따라서 천수다라니를 독송할 때에도 그 의미를 사유하며 독송하는 것이 더욱 유익할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불행은 어떤 힘에 의해서라기보다 과거의 행위에 그 원인이 있다. 깊은 숲 속 큰 호수에 사는 사슴 무리의 비유에서처럼 모두의 이로움을 바라고 번영을 바라고 유가안(瑜伽安隱)을 바라며⁴⁹⁾ 평화롭고 안전하고 기쁨을 주는 성스러운 길인 팔정도, 혹은 바라밀다를 닦으며 다라니를 수지한다면, 마음의 긍정적인 경향성은 더욱 확장될 것이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보살에게 아상(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한다.⁵⁰⁾ 네 가지 상의 제거는 곧 번뇌심의 제거이다. 『금강경』은 이 네 가지 상을 부정하는 무상(無相)을 설함으로써 초기 불교의 무아관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게다가 『해심밀경』의 지관수행에서 유분별영상(有分別影像)을 제거해 가는 것과의 연관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세계를 강타한 Covid-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내면을 다스려야만 하는 시대는 마주하고 있다. 그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경의 구절을 새기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경험이

47) 정각(2001), 79.

48)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실(2007), 134.

49) MN.I, 117, “tasseva kho pana bhikkhave mahato migasanghassa kocideva puriso uppajjeyya atthakāmo hitakāmo yogakkhemakāmo”

50) 『금강반야바라밀경』(T8, 749a), “何以故, 須菩提, 若菩薩有我相人相衆生相壽者相, 即非菩薩.”

될 것이다.

지난 30년 동안 하버드 의과대학의 여러 연구실에서 몸과 마음이 서로 주고받는 영향의 결과를 조직적으로 연구해 왔다. 그 결과, 사람들이 경전의 한 구절 또는 명상 지도자의 말을 거둬 읊거나 성스러운 소리라도 그저 반복해서 내면, 마음이 산만해지는 것을 막고 몸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정신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쪽과는 반대 방향의 변화들이 시작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또 명상수련이 가져다주는 혜택들이 증명되어, 명상이 고혈압, 불규칙한 심장 박동, 만성 통증, 불면증, 발기부전 따위 증상들을 경감시킨다는 사실이 드러났다.⁵¹⁾ 따라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짧더라도 경전을 독송하는 시간을 차츰 늘려 가면 어느새 여래의 지에 다다른 순간이 올 것이라 사료된다.

5. 맺는 말

본문에서 고찰한 것처럼 ‘경을 읽는다, 암송한다’라는 독송이라는 용어는 \sqrt{dhr} (수지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수지풍송·수지독송 등의 형태로 한역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붓다 재세 시, 간단하고 외우기 쉽게 진리의 구절을 노래로 만들어 암송하고 다니면서 수행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암송은 경에 담긴 의미와 지혜를 익히고 전달하는 주된 학습방법이었다. 붓다의 가르침은 불멸 후, 무질서가 승단에 밀려올 것을 예상한 붓다의 제자들에 의하여 합송(合誦)에 의한 결집이 이루어 졌고 구전을 통하여 전승되었다. 붓다가 말한 모든 것은 청법자(聽法者)들을 해탈로 인도한다는 목

51) 이현주 옮김(2018), 151.

표와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는 붓다의 가르침과도 상응한다. 이러한 연유로 붓다는 번뇌의 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알아야 괴로움을 멸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아함경』 「밀환유경」 경을 수지·독송하기를 권고한다. 『대반열반경』에서 붓다는 비구들에게 사성제의 교설을 통해서 모든 법에 대하여 번뇌를 끊고 마음이 해탈하는 길에 대하여 말하며, 법을 듣고 잘 받아 지녀야 할 법과 그렇지 않아야 할 법을 분별할 것을 당부한다. 「아비담비바사론」에서는 십이부경을 수지·독송하고 사유·관찰하는 것은 생득혜(生得慧)라고 하며, 이 생득혜(生得慧)는 문혜(聞慧)·사혜(思慧)·수혜(修慧)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성문·독각·보살 삼승이 배워야 할 온갖 법을 모두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문지, 독각지, 보살지, 여래지를 배우고자 한다면 반야바라밀다를 부지런히 듣고, 익히고, 독송하며 수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불교 초기의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경과 경에 대한 공양이 추가된다. 대승의 보살에게 예배·공양·참회·수회·권청·발원·회향은 최상의 공양이며, 발보리심·청정심·자성이 공(空)함을 알고 아견을 끊는 것은 세 가지 근본이 되었으며, 정법이 오래 머물도록 반야바라밀을 책으로 만들어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제공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공덕이 된다고 여겼다.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암송하며, 풀어서 설명하고, 서사하는 자를 오종법사라 한다. 법사라는 명칭은 초기불교나 부파불교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불멸 후 기나긴 세월동안 붓다의 교설은 다양한 공간에서 토착화를 거치며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대승의 경전이 붓다의 교설을 원음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붓다의 가르침에 대한 근본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은 보살에게 아상

(我相)·인상(人相)·중생상(衆生相)·수자상(壽者相)이 있다면 곧 보살이 아니라고 한다. 네 가지 상의 제거는 곧 번뇌심의 제거이다. 『금강경』은 이 네 가지 상을 부정하는 무상(無相)을 설함으로써 초기 불교의 무아관을 새롭게 해석하였다. 게다가 『해심밀경』의 지관수행에서 유분별영상(有分別影像)을 제거해 가는 것과의 연관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오늘날 독송 수행은 불보살의 위신력에 치중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경전을 독송할 때, 독송자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경의 구절의 참 뜻을 음미하며, 함이 없는 마음에서 그저 담담하게 독송한다면 그로 인한 공덕과 가피는 각자의 근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1. 사전류

Apte, Vaman Shivram(1965), *The Practical Sanskrit Dictionary* (Fourth Revised and Enlarged ed.), Delhi: Motilal Banarsidass.

Ishihama, Yumiko & Fukuda, Yoichi, eds(1989), *A new critical edition of the Mahāvvyutpatti: Sanskrit-Tibetan-Mongolian dictionary of Buddhist terminology*, Tokyo: Toyo Bunko.

2. 1차 자료

대정신수대장경 : T

MN. Majjhima-Nikāya, PTS.

SN. Saṃyutta-Nikāya, PTS.

『금강반야바라밀경』 T8.

『대반야바라밀다경』 T5.

『대반열반경』 T1.

『묘법연화경』 T9.

『묘법연화경문구』 T34.

『불설법집명수경』 T764.

『불설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다경』 T8.

『아비담비바사론』 T28.

『잡아함경』 T2.

『중아함경』 T1.

3. 2차 자료

- 김희중(2020), 『『금강경(金剛經)』 독송(讀誦)과 체험사례 고찰』, 2020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불교학회.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07), 『진언 다라니 수행 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2012), 『간경 수행 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 앤드류 올렌스키 지음·박재용/강병화 옮김, 『붓다마인드』, 경기: 올리브그린.
- 에띠엔 라모뜨 지음·호진 역(2006), 『인도불교사』 I·II, 서울: 시공사.
- 윤종갑(2018), 「현행 『천수경』에 나타난 신앙형태와 참회사상」, 『한국불교학』 85, 한국불교학회.
- 이현주 옮김(2018), 『틱낫한 기도의 힘』, 서울: 불광출판사.
- 잭콘필드 지음·이재석 옮김, 『마음이 아플 땐 불교 심리학』, 서울: 불광출판사, 2020.
- 정각(2001), 『천수경연구』, 서울: 운주사.
- 조기룡(2018), 「불교명상의 正尙」 탐구,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78, 원불교사상연구원.
- 차차석(2008), 「법화경전편에 나타난 초기부파불교의 영향 탐구」, 『불교연구』 28, 한국불교연구원.
- N. Dutt(1931), *Bodhisattva prāimokṣa sūtra, The Indian Historical Quarterly* VII, Calcutta : Calcutta Oriental Press.

■ Abstract

**A Study on the Buddhist doctrine implications
of scripture reading (讀誦) practice**

Ahn, Yu sook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Buddhist doctrine implications of scripture reading (讀誦) practice. The practice of reading the scriptures is a preliminary step of taking the meaning of the scriptures of the Buddha's teachings in order to move on the path of liberation. However, today, the scripture reading practice tends to be accepted as a ritual act that is performed for penance or offering blessings. Also, most Buddhists tend to scripture reading or chanting just to get the Gapi (加被) by relying on the Bodhisattva's prestige. Perhaps due to such reasons,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that focus on the miracle of scripture reading.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nd the Buddhist doctrine basis for the scripture reading practice from early Buddhism to the Mahāyāna Buddhism, and to confirm the purpose and modern significance of the reading to understand the original meaning of the distorted scripture reading.

First, on the basis of contrastive analysis data, Pāli Canon and Chinese Agamas, the conclusion as follows meaning. The etymology of chanting is interpreted as the imperative 'dhārehi', derived from the Sanskrit $\sqrt{dhṛ}$, is interpreted as the imperative of 'to bear in mind', 'recollect', 'remember'.

And this word is translated as a 受持·諷·誦·讀·誦. These words have been confirmed by CBETA. This study are discussed with particular focus on 受持 and 讀誦 in order to grasp the viewpoints of Abhidharma Buddhism and Mahāyāna Buddhism on scripture reading practice. Abhidharma begins to establish a Buddhist doctrinal system of Dharma. Reciting, observing, and thinking about 12 types of sūtra causes 聞慧. In addition, it seems that the Mahāyāna Buddhism attempted to restore the fundamental spirit of the Buddha's teachings by transcription and offerings for Sūtra.

Lastly, it is deemed that it is deserved to properly understand and to do practic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scriptures even when reading the scriptures that have been the basis of today's Korean Buddhist faith.

Keywords ● scripture reading (讀誦) practice, to bear one's mind, chanting, liberation, Mahāyāna

■ 논문투고일 : 2020. 5. 22 ■ 심사완료일 : 2020. 5. 31 ■ 게재확정일 : 2020. 6. 2